

교육부 선정 가상대학 설립팀 결성

교육부 2차 심사 통해 선정 결정

우리학교는 지난 13일 교육부가 98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하게 될 (가칭) 가상대학 프로그램 운영대학 선정과 관련, '가상대학 설립팀'을 결성했다. 박규홍 수원캠퍼스 부총장을 팀장으로 하는 이번 설립팀을 양캠퍼스 관련 교수와 직원을 주축으로 결성되었으며 오는 25일 10시, 3차 회의를 가

질 예정이다. 한편 우리학교는 시범운영계획서를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4개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부에 오는 12월 15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98년 1월까지 1, 2차 심사를 거쳐 98년 2월까지 성적이 우수한 5팀 내외를 선정, 발표한다.

과거 학교 건물과 강의실에 한정된 공급과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의 장을 가정, 직장까지 확대시킨 정보화 시대 교육을 추진하고자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오는 98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2년간 운영된다. 선정된 대학의 경우 98년도 대학재정 지원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한편 일반 학생, 시간제 등록생, 사회교육원생을 대상으로 하게될 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말과 98년 1월초 실시하게 될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학에서 동시에 운영하게 된다.

〈취재부〉

26일 국제 한의학 학술대회

한·독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의대학교 한의학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국제 한의학 학술대회'가 오는 26일 오전 9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침술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한 다케시게(일본 소와 의대)교수와 13명의 석학들이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년 열릴 예정인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한의학 연구소 김광호 소장은 "한의학과 대학 설립

후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적인 학술제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7년 '한·독 국제 학술세미나'가 오는 25일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Peace Hall에서 개최된다.

아태지역연구원이 주관하고 독일문화원 및 독일청소년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통일후 예상되는

청소년 문제를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조망하고 여러 각도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세미나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오전발표 순서에서는 '통독 후 청소년 폭력 및 일탈'에 대해 독일 청소년 연구소 실장 Dr. Klaus Wahl이 발표하고, '통일 후 예상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장일순(사회)교수가 발표한다.

또한 오후 발표 시간에는 Konstanz대 Gisela Trommsdorff 교수와 유도진(사회)교수가 '통독 후 동독청소년의 사회화'와 '분단의 의미와 통일을 대비한 남한 청소년의 가치관 연구'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한편 장일순(사회)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법대·가정대 학생회선거

제30대 법대학생회장 선거에 정후보로 류용성(국법2), 부후보로 정용민(행정2)군이 단독 출마하였다. 투표일정으로는 오는 24일 12시30분에 법대 앞에서 정·부후보 유세가 있을 예정이며 투표는 26,27일 간 이뤄진다.

한편 제11대 가정대학회장 선거에 정후보 은희정(식영2)양과 부후보 성지희(아주2)양이 단독 출마하였으며 투표는 26,27일이다.

외국인 근로자 위한 무료 한국어 강좌

수원캠퍼스 국제교육원(국교원)에서는 경기, 수원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자 외국인 대상 무료 한국어 및 한국문화강좌를 실시한다.

민간차원의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강좌는 오는 27일부터 10주간의 교육기간으로 연중 계속되며 3개반 50명을 모집, 교육한다.

교육은 주1회 3시간의 한국어 교육과 민속놀이와 전통무예 등에 관한 한국문화강좌, 민속촌방문등의 현지학습을 내용으로 하며 매주 간식제공, 건강진단 및 의료상담등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국교원에서는 오는 26,27일 양일간 모의TOEIC을 실시한다. 시험은 26일 오전 10시30분 외대 202호, 오후 5시 외대 305호에서 실시되며 27일에는 오후 5시 외대 321호에서 치뤄진다. 접수는 시험당일까지 국제교육원에 해야하며 접수비는 4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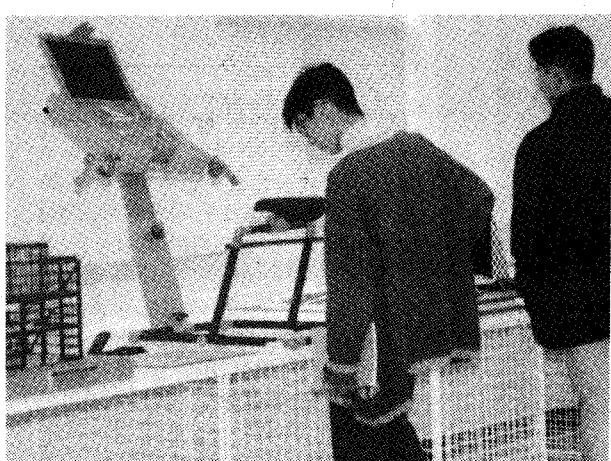
조형학부 전공선택 소집

산업대 조형학부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전공 선택을 위한 소집을 실시한다.

1학년 학생을대상으로 하는 이번 소집은 산업대 351호 강의실에서 열린다.



〈제275회〉
최 용 섭



산디과 졸업작품전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전시실에서 열린 '제6회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작품 전시회'.

오는 2월에 졸업을 하게될 4학년 학생들의 작품으로 장식된 이번 전시회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속에 막을 내렸다.

고내단신

제2회 목련음악회

미래의 경희인과 학부모를 위한 '제2회 목련음악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크라운관에서 개최된다. 교무처와 음악대학이 주최하고 월간 '대학으로 가는 길'이 후원하는 이행사는 1부에서 김상태 입학관리과장의 사회로 입시설명회가 개최되며, 2부에서는 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음악회에는 김암, 박미혜, 전영혜, 이희선 교수 등이 출연한다.

여자 하키부 국제하키대회 우승

체육과대학 여자 하키부가 '천리대 30주년기념 국제하키대회'에서 우승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천리대 오야사또 구장에서 호주대표, 일본 OG (Old Girls)대표, 천리대와 리그전을 벌인 우리학교 선수들은 2승1무의 성적으로 우승컵을 안았다. 이번 경기에 출전한 선수와 학년은 다음과 같다. 김은진(4), 하미애(4), 이승희(4), 노은희(4), 이은옥(4), 우현정(3), 안혜진(3), 윤재희(3), 박용숙(3), 박주나(3), 최은실(2), 이미영(2), 이선희(2), 김민경(2), 차은미(2), 이효심(2), 오수진(1), 정지현(1), 양지혜(1), 홍미희(1), 김민정(1), 이재선(1), 서의정(1) 등 총23명.

금연침 무료시술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침구 2과는 지난 21일부터 담배없는 사회, 건강한 대학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금연침을 무료로 시술하고 있다. 오는 12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는 이번 시술에는 매회 4~5명의 의료진이 참여하며 시술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다.

크라운홀 개관기념 작곡발표회

오는 24일 오후 6시30분 크라운홀에서는 '크라운홀 개관 기념 작곡 발표회'가 개최된다. 우리학교 음악대학과 음악대학 동문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는 약 두시간 동안 여러 종류의 현대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민족 문학의 밤

국어국문학과는 오는 12월 3일과 4일 '당신의 하루에 문학이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 첫날은 학술제 '삶속의 문학, 문학속의 삶'이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이튿날에는 예술제 '일상을 일으키는 소리와 몸짓'이 크라운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우선복(국문3)군은 "민족문학의 밤이 생활속에 우리의 학문이 깃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학회 학술제

경희대학 경제학회는 오는 27일 오후4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21세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날 학술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것으로 보인다.

취재노트

◇...풍생품사(II)

화장실 가는 길에 기적지마. 없어도 자존심만 지키며, 남들과 똑같이 창피함 없었어야. 잠금고리 문에 없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당당하게 붙들 다 보았지, 그만이라 말하고 쓰러진 눈물을 삼키며 터벅터벅 돌아섰던 마지막 뒷모습 내가 봐도 멋있었어.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나인데, 어차피 구차하게 부탁할 순 없잖아.

맨 몸으로 부딪혀온 내 삶에 그까지 창피함은 괜찮아. 따라라라~, 따라라라~. 〈은정〉

◇...극장식 레스토랑

고향집에 신종 사업이 등장하였다기에 노트리 알아보니 레스토랑에서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쇼도 볼 수 있다는데... 獅형들이 복지회관 학생식당에서 점심을 들면서 동시에 쥐도 구경할 수 있었다고. 獅형들의 원활한 소화작용을 위한 관계자측의 특별 배려인지도 모르고 다른 식당을 이용한 노트리 미안할 따름이요. 〈수란〉

◇...아낌없이 줄 수 없는 나

무

그들은 발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묘목을 심었다. 그 묘목은 아낌없는 나무로 자라나 그들의 소년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책에...

이들은 멀쩡하게 자란 나무의 가치를 치고 값게 자리잡은 뿌리를 말끔히 잘라낸다. 겹질은 사포로 매끈하게 갈아 거기에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이들은 깨달아야 한다. 이들이 '대선'이란 외도로 허술하게 꾸민 나무는 이내 검은 빛을 띄며 죽고 만다는 사실을... 이제 이들은 경제난국 한국에 자라고 있는 병든 나무를 돌보아야 하지 않을까? 〈지은〉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내일은 경희대학교가 어떻게 변할까?

오늘, 경희가 아름다운 까닭은?

경희가족 감동의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경희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랑스런 대학으로 발돋움할 1999년, 개교50주년,

여러분의 당찬 마음을 그득하게 채우고 감동의 미소로

경희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펼쳐지는

경희의 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희발전기금 참여안내

■대상 : 경희가족(동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독지가, 기업, 기관, 단체 등

■기부형태 :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탁자산(부동산, 기타), 도서자료, 실험실습기자재 등

■납부방법 : 일시 또는 월납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별 (예 : 직장/지역동문회 등)

• 각 학교/대학(원)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예금주 :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서울은행 17301-2710-209
농협 031-01-396711
우체국 012336-0025556

한일은행 070-084146-13-101
외환은행 131-13-10336-6
평화은행 044-01-001-286
경희사랑저금통기금(서울은행) 17308-9505323

(130-701)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 : 961-0931/2 Fax : 961-0906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사업회

안녕하십니까?

경희가 걸어온 길을 이어, 앞으로 경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예감케 하는 경희가족찾기 캠페인의 성공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모교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경희가족 찾기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이면 경희대학교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교50주년과 격동의 21세기를 앞두고 경희의 발전을 통하여 경희가족에게 간접적인 성취감을 느끼도록 할 것이며, 동문들의 자긍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자랑스런 경희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희가족찾기를 통하여 파악된 동문과 경희가족에게는 모교소식이 담긴 각종 홍보물을 우송해 드릴 예정이며, 전 동문 직업별 편람도 간행하여 동문들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진행할 계획이며, 모교와 연락이 닿지않는 동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거나 회신하여 주십시오.

성명	주민번호
졸업학과	직장명
입학년도	부서/직위
졸업년도	근무처전화
주택주소	근무처주소
주택전화	기타